

직장 불자들이 '경전삼매'로 겨울나기

감사원불자회, 국립서울정신병원불자회, 유니텔 불교동호회, 금강경 등 많은 직장직능불자들이 경전공부를 통해 회원들의 신심을 키우며 내일 다지기로 새해를 열고 있다. 특히 경전공부에 대한 직장불자들의 열정은 자연스럽게 단체 조직력과 불자회 운영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 음장 등의 경전을 배웠고, 지난 15일부터는 한글 아함경 강독을 시작했다. 매주 월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진행되는 이번 강독은 아함경 가운데 재미있고 기초 교리를 담고 있는 부분을 발췌해 우선적으로 강의한다. 매주 한차례씩 열리는 경전공부법회를 계기로 자주 만나다 보

상의 경전공부방에서 회원 개인이 경전공부를 하고 매달 첫째주 오프라인에서 동국대 조용길 교수를 모시고 강의중심이 아닌 질의 응답 및 토론방식으로 아함경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있다. 배워야 의식이 생기고 의식이 생겨야 발전할 수 있다'는 옛 성현의 말처럼 이들은 경

백 표교사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매달 둘째, 넷째 주 수요일 정기법회를 병행하는 경산조계창 금강회(회장 윤종수)는 지도법사 정악(대구불교회관 보리원 주지) 스님을 강사로 지난해 11월 넷째주 법회부터 금강경 강의를 하고 있다. 강의를 듣고 있는 20여명의 회원들은 모두 기본교리강좌를 이수한 법우들. 열흘간 점심시간을 이용해 회사내 법당에서 교리부장에게 불교에 대한 기본 소양을 집중적으로 배워 불교소양을 익힌 이들이 지금은 경전 공부를 통해 신심을 다지는 독실한 불자로 거듭나고 있다. 윤종수회장은 "그 동안 뜻도 모르고 수지 독송한 금강경을 공부해 신심을 높이는 취지로 금강경 강좌를 시작했다"며 "지금은 회원들이 금강경 수업을 듣고다니며 여가시간에 독송하는 등 공부하기 전과 다른 신행모습을 보이고 있고 법회에도 열심히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중합기계 KAI불교법우회(회장 전진환) 회원 20여명도 인근 성주사 수다라경전학교에서 유식 강의를 듣고 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던 회원들이 지금은 경전공부를 통해 타

력에서 자력으로 신행패턴이 변했고 나름대로 불자라는 자부심도 높아져 불자회도 활성화되고 있다. 그 외에 경주구치소 불심회, 운봉원, 창원 한중법우회, 스카우트불교지도자회도 꾸준히 경전공부를 통한 내일다지기에 주력하고 있고 석불회, 국립의료원, 한일 병원 등 많은 직장불자회들도 체계된 불자회 활성화를 위해 경전공부를 준비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성직자들이 8일 명동성당에서 3대 개혁입법의 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기원하고 있다.

“정의 바로서는 나라 만들자”

종교인 '3대 개혁입법' 제정·폐지 기원대회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부패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인권 운동가들의 단식농성이 12일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3대 개혁입법 제정 및 폐지 시인, 종교인 기원대회'가 8일 서울 명동성당 들머리 농성장에서 열렸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등 종교인 50여명 등 200여명의 참석자들은 이날 대회에서 축한의 추후에도 불구하고 노상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권 운동가들의 단식을 지지하고, 개혁입법 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의지가 없는 현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수경 지리산살리기탐방지화추진법 불교연대 상임대표 스님은 기원문을 통해

“인권 활동가들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정치권이 3대 개혁입법 실현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보이지 않고 당리당략에 의한 투쟁만을 일삼고 있다”며 “3대 개혁입법을 조속히 완결지어 원칙과 정도가 바로 서고 의로움과 공정함이 흐르는 진정한 화합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불교계에서 수경, 도법 실상사 주지, 명진(조계종총회 부의장)스님 등 32명, 기독교에서 김광수 목사 등 26명, 천주교에서 문정현 신부 등 60명이, 원불교에서 이정택 교무 등 24명이 참석하거나 지지의사를 밝혔다. 김재경 기자

감사원 불자회 천수경 강설 법회 서울 정신병원 한글 아함경 강독 경산 조계창 금강경 독송 신행



▷ 신사년 새해, 많은 직장불자들이 경전공부를 통해 회원들의 신심을 키우며 내일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감사원 불자회 천수경 강설법회.

감사원불자회(회장 노옥섭)는 9~11일까지 3일간 감사원 대회의실에서 천수경 강설법회를 봉행했다. 정초부터 조직개편, 업무보고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날 법회에는 회원 20여명이 동국대 김호성 교수의 천수경 강의를 들었다. 감사원불자회가 새해부터 천수경 강설법회를 계획한 것은 법회 시간에 매일 독송하는 천수경의 이해를 통해 회원들에게 직장불자로서의 올바른 신행 방향을 제시해 주고 싶어서다. 참석자들은 교재인 <천수경(민음사)>에 강사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적으며 어느새 경전삼매에 빠졌다.

노옥섭 회장은 “올바른 수행과 실천은 올바른 불교관에서 나오는 것인데도 불자들이 경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짧지만 3일 동안의 천수경 강설이 회원들의 신행활동과 불자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3교대 근무로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국립서울정신병원 불자회(회장 김주희)도 경전공부를 통해 불교공부를 체계화해 불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있다. 그동안 지도법사인 명성여교 이화주 교법사로부터 부모은중경, 초발심자경

전을 중심으로 토론하고 사고하면서 불교관을 정립시켜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매주 목요일 강남포교원에서 참선방을 열어 수행정진하고 있고,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있다. 오기섭 대표사장은 “지난해 실시한 금강경 공부가 신입법우와 초심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 올해도 경전공부를 기획했다”며 “꾸준한 공부를 토대로 한 수행과 보살행 실천으로 회원 모두가 일당

활동을 하게 된다. 02)989-4215-8

▷ 독거노인 후원자=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무의탁 독거어르신들에게 차량운행 서비스를 통한 말뚝안 배달에 도움을 줄 자원봉사자와 말뚝안 “서비스에 필요한 1회용 용기를 기증할 후원자를 모집한다. 02)2203-0855

이전

▷ 월간여성불교 사무실 서울 중구 1가 3-6 서울빌딩 507호로 이전했다. 02)2285-6796

▷ 달라리마 방한준비위원회는 서울 중로구 수송동 38-3 조계사내 중앙종회 건물 3층으로 이전했다. 02)730-8586

▷ (사)성보문화재단연구원은 구암 27일 서울 마포구 마포동 350번지 강변한신코아 1505호로 이전했다. 02)701-6830

게시판

알림

▷ ARS 후원 전화 개통=청담종합사회복지관은 관내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ARS 후원전화 02)700-0807을 개통했다. 각 가정의 전화와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가능하며 1회 통화시 3000원의 후원금이 적립된다. 후원금은 불우이웃을 위한 결연사업, 물품후원, 무료급식 등으로 사용된다. 02)806-1376

▷ 우리웃 바자회=법동종합사회복지관은 15~20일까지 복지관 지하매장에서 우리웃 바자회를 개최한다. 행사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수익금은 전액 저소득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의 기초생활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04)2633-1141

강좌

▷ 옷 만들기=인드라망 생명공동체는 27~31일까지 4박5일 동안 실상사 기동전문학교에서 제 5기 옷 만들기 강좌를 실시한다. 자원활동가 김성희씨의 강의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바지, 치마, 조끼 등을 실습을 통해 직접 만든다. 02)733-1884 김혜수

▷ 불교문화와 반야심경=광주불교문화대학은 2월 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광주불교문화대학 강의실에서 불교문화와 반야심경을 주제로 무료 강의를 개최한다. 06)2228-9098

▷ 모범연화경=양산 반야암은 19일부터 모범연화경 강좌를 실시한다. 강의는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지안 통도사 강주스님의 강의로 진행된다. 05)382-3211

모집

▷ 미술강사 및 청소년신문 기자=원종종합사회복지관은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미술을 지도할 강사와 부천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2월 창간 예정인 ‘청소년신문’ 기자를 모집한다. 03)2677-0108

▷ 전문면접인=민족사는 IBM컴퓨터 사용 가능한 경력 2년 이상의 전문면접인을 모집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이며 원서접수는 1월27일까지다. 02)732-2403-4

▷ 여성장애인 모임 단원=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여성장애인 권익옹호와 친목모임을 위한 모임인 ‘별이 되는 사람들’의 단원을 모집한다. 강북구 및 인근지역 거주 20~40세 미만의 지적장애 여성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야외놀이 소식지 제작 등의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동산불교대학 2001년도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기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8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반야사상 · 법화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학특론	· 부친장스님(본대학학장) · 정병조(동국대교수) · 계한스님(동국대교수) · 김성현(동국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장희욱(동국대교수) · 박 중(동산불교대학교수) · 김경철(동국대교수) · 진한준(동국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2년 교과목	· 불교학개론 · 선종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성당론	· 권기중(동국대교수) · 최홍석(동국대교수) · 윤일수(문화재단연구원) · 홍석스님(승가대교수) · 한정섭(금강산원이사장) · 김호기(동국대교수) · 유진스님(동국대교수) · 최봉수(동국대교수) · 구명철(동국대교수) · 오국근(동국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정규반 (100명) 주간반 (50명) 통신반 (50명)	불교를 적극 신봉하고자 하는자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2000년 12월 15일~ 2001년 1월 31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동산교육회관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지원가능

4. 입학일시 2001년 2월 3일(토) 오후 5시 (동산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 ☎ 732-1206-8, FAX 732-1207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서울 : 보련각(조계사) ☎ 02)733-0333 ◎ 부산 : 불서보급사 ☎ 051)246-4321
◎ 대구 : 상영불교서림 ☎ 053)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 062)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 064)755-2203

* 특전사항 : ◎ 상급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교사시험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http://www.dongsanbud.org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향비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할(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권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품의 성분이 신권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체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항인 과루트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대가 염미의 맛을 통해 모에서 영양을 공급하는 것처럼 신권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하여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필요한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가 두통까지 걸린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약이며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권혈)에 찌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만 지나 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놀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액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 전국 대리점 모집 중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매달되는 증상(○) 미시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민첩이 없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위독이 없다
-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때 뒷덜이 고통스럽다
- 11 배나 목구멍 근처에 아픈 편이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굳은 실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빠르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 10가지 이상 해당되는 분은 즉시 전화하십시오